

여수, ‘기본사회’ 실현 방안 논의

기본사회위원회와 지역 맞춤형 정책·정부 지원 방안 모색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20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제5차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해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진 지방정부특별위원장, 김종걸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장,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기본사회 추진과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 지방정부특별위원장의 기조강연과 행정안전부의 추진 상황 공유에 이어 여수시와 전남연구원의 발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여수형 기본사회’

추진 상황과 정부 지원 건의를 주제로 섬과 도심, 농어촌, 국가산단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고 생활권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인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햇빛소득마을을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해상 풍력과 공공부지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도 설명했다.

시는 기본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협업체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여수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자료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기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의 읍·면·도서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여수를 지방정부 기본사회 추진모델의 실증·건설형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섬과 산업단지, 농어촌이 공존하는 여수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의 목소리가 정부 기본사회 정책과 연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여수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가 기본사회위원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순천시(시장 순훈모)는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민의 결정을 실행할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위원을 오는 11월 9일까지 24개 읍면동에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적용되는 첫 모집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이며, 사업장·학교·기관·단체 소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다. 위원들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한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 이후 해마다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자치를 선도해 왔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가족센터, 초등돌봄 아동 130여 명과 체육대회 개최

광양시가족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지난 17일 성황스포츠크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9개소 이용 아동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각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아동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지구공 굴리기, 터널 달리기, 협동 달리기, 계주 등 여러 경기로 진행됐다. 아동들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경기마다 서로를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아동들에게 일상적인 돌

봄 공간을 벗어나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가족센터는 관내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1개소에서는 부모·자녀 상시 프로그램과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시는 아동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주민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 박람회’서 우수 성과 입증

곡성군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하고, 전남·광주 27개 시군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현재 11개 읍·면 중 석곡면과 죽곡면 등 2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해 곡성만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였으며,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했다.

특히 석곡면 주민자치회 이건규 회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활성화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 표창을 받았다.

또한 10개 시·군이 경합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한 끼로 살피는 먹거리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람회장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과 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제정 등을 안내해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민과 마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자치 활동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지구별 환경생태탐험대 성황리에 마무리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진행한 특별 기획행사 ‘지구별 환경생태 탐험대’에 총 3,295명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의 설명과 관람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관찰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친환경 나무놀이터를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터, 재활용 상자로 만든 박스놀이터, 캠핑·뱃놀이, 업사이클링 악기 제작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운영됐다.

특히 전기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나무놀이터와 폐자원을 활용한 징크워크숍은 일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높이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들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익히고, 자연 소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친환경 생활방식을 접했다.

동물의 생태적 특징과 서식환경을 살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의 대표 생태자원인 천연기념물 수달 관람도 함께 운영됐다.

방문객들은 수달의 생활 특성과 서식환경을 살펴보고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